

라인홀드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에 대한 소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

I. 들어가는 말

‘모더니즘’(modernism, 근대주의)은 과학적 합리성을 통하여 왕조와 농노의 봉건적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서구중심의 모더니즘은 사실 약소국가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 식민지의 경험과 다름이 아니었다. 1,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아물면서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은 국가의 개념과 과학의 목표, 성과 인증 그리고 생태계에 관한 관심을 새롭게 하려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 세계는 인권과 문명의 세계화가 아닌 ‘시장의 세계화’를 통한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국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모더니즘 이론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을 재구성하는 이유는 그가 기독교 현실주의의 이론가로서 꼼꼼하게 미국 사회와 국제 사회 그리고 인류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근대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니버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내용은 니버가 파악한 ‘모더니즘의 문제’, ‘제국주의적 권력투쟁’, ‘국가의 역할’, ‘모더니즘과 정신

문명’, ‘모더니즘 과정에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책무’ 등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니버의 주요 저서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결론으로 모더니즘의 시대에 감당하여야 할 기독교 정치 윤리의 ‘공공신학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한계는 니버의 근대주의 개념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였기에 지면의 한계상 현 포스트모던의 특성과 연관하여 이론을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추후 니버의 근대주의 이론이 포스트모던 담론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한국 기독교 정치윤리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니버의 현실주의가 제국주의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제3세계 신학의 비판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그동안 라인홀드 니버에 대한 연구가 정치 윤리적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같은 소주제와 연관하여 산발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기에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을 통하여 기독교 정치 신학의 과제에 대한 예비 담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¹

II. 모더니즘과 권력

역사는 과국 없이 발전하지 않으며, 행복은 육체적 안위의 보장 없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조화는 더 현명하지 않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의

1 필자가 DBpia를 통하여 라인홀드 니버의 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니버의 ‘정의론’, ‘공산주의’, ‘현실주의’, ‘권력 개념’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그의 ‘문명론’과 ‘신화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 URL=<http://www.dbpia.co.kr/proxy.mtu.ac.kr:8080/search/topSearch?startCount=0&collection=ALL&range=A&searchField=ALL&sort=RANK&query=%EB%9D%BC%EC%9D%B8%ED%99%80%EB%93%9C&srchOptionr>, 2020년 10월 27일, 최종 접속. 한편, 니버의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십시오. 배근주, “정치 권력에 대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를 생각하며,” 『제3시대』 96 (2016. 11), 7-10.

본성은 그동안 추측하여 온 것처럼 선하거나 혹은 무익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의 낙관주의가 절망에 항복한 시대에 살고 있거나, 또는 덜 세련된 현대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실이 부정해온 신조를 붙들고 절망의 심연을 간절하게 피하려고 시도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다.²

니버 시대에 근대(modern)의 문제는 자본주의를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문명에 의하여 현대문명이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하며, 니버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는 변증의 위치에서 신학을 전개한다.³ 니버의 모더니즘에 관한 분석은 권력의 속성을 깊이 파악하고 산업혁명의 후유증에 따른 정치 경제적 혼돈과 그리고 이에 따른 비인간화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니버에게 모더니즘이란 ‘권력투쟁’의 장이며, 기술혁명에 따른 비인간화와 부정적 상황, 즉 혼란을 전제하며, 전기에너지의 동력을 통하여 자동생산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제2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있다.⁴ 니버는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할 때,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슬회한다. “[공장 내] 열기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여기 수동작업은 고되었으며 일은 노역입니다. 사람들

2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188.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니버의 주요 저서는 archive.org에 원본이 제공된다. 필자는 니버의 주요 저서를 이 사이트의 'pdf file'로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니버의 주요 저서 중 이 사이트에 없는 추가 자료들은 별도로 인용을 표기함을 밝힌다.

3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3. 이하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니버의 저서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는 아래 사이트에서 원본을 확인하여 'pdf file'로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니버의 저서는 일반 'plain text'이므로 별도의 표기는 pdf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 2020년 12월 18일 최종 접속.

4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64-65.

은 자신들의 노동에서 전혀 만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⁵ 기술혁명의 특징은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적 독점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권력의 중앙집중과 비인간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⁶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인간은 권력의 독점을 놓고 쟁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부터 국가주의적인 무정부”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이 “선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규범은 가능하지 않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⁷

니버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권력이라는 속성이 내부집단 간 관계 내의 무정부를 막으면서, 실은 “자신들끼리만의 무정부를 부추기다”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⁸ 니버는 “현대의 국제적 무정부는 오랜 무정부 역사의 결과가 아니다. ... 오히려 질서의 타락이며 해체이다”라고 주장한다.⁹ 따라서 니버의 무정부 개념은 정치적 상황을 설명할 뿐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는 인간과 집단의 도덕적 공황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버가 파악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나타나는 권력의 욕망은 개인이나 가족 집단 그리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드러난다는 점이다. 니버는 자유방임형(laissez faire)도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국주의적 요소와 같은 형태로 보는데,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의 문제는 이미 니버에게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¹⁰

니버는 권력의 균형이 무너져 타락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설

5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99.

6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1944), 81.

7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237.

8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16.

9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330.

10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6), 33.

명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의지가 다른 이의 의지를 억압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그 충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소외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이다.¹¹ 니버 당시,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구소련도 각 국가가 권력의 의지를 통하여 국제 사회에서 갈등을 빚었으며, 서로가 권력의 우위에 있다는 견해를 내려놓지 않은 한, 국제 사회에서 평화는 힘들 것이라고 니버는 진단한다.¹² 따라서 “권력과 정의, 또는 자유와 정의의 관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주주의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¹³ 오히려 국가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교만이 드러나며, 이익을 확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보복을 수반하게 된다.¹⁴

지금까지 필자는 모더니즘의 특성으로 권력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 권력투쟁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겠지만, 니버에게 권력의 속성은 ‘무정부’ 상태를 전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탐하는 정치집단에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물론 니버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론을 통하여 ‘무정부’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니버 신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통찰력은 권력에 집착하는 개인과 집단의 도덕성 자체도 무정부적 상태임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근대화의 기치 아래 모더니즘이 추구한 역사 발전의 한계는 철저하게 유

11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1941), 275.

12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86.

13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59. 이하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니버의 저서,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는 아래 사이트에서 원본을 확인하여 'pdf file'로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니버의 저서는 일반 'plain text'이므로 별도의 표기는 pdf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2020년 12월 18일 최종 접속.

14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30.

한한 인간이 이성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정치와 경제를 막론하고 권력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음을 니버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보편적인 휴머니즘의 결과가 무정부로 귀착된다는 니버의 비판은 근대 문명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근대주의가 추구하는 권력투쟁의 실상인 제국주의의 속성에 대한 니버의 관점을 살펴보자.

III. 모더니즘과 제국주의적 권력투쟁

니버에 따르면 모더니즘은 권력투쟁에 따른 “계급 갈등과 국제적 분쟁”을 초래한다.¹⁵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은 세계 내에 서로 충돌하는 계급 간의 갈등은 국가 간의 연합을 불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는 국가 간의 연합을 더 어렵게 한다.¹⁶ 18세기에 등장한 근대민주주의는 정부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통치체제를 가지지만, 결국 계급의 이익을 방기하고 “경제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구속”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가며, 경제 권력의 형태를 띠게 된다.¹⁷ 니버는 이런 맥락에서 근대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경제 권력과 특혜”를 끌고루 분배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았다.¹⁸

니버가 파악한 근대국가의 모습은 제국주의적이다. 전통적인 봉건사회

15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6), 49.

16 Ibid., 112. 니버가 모더니즘의 국가 이면에 있는 권력투쟁으로 야기되는 무정부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니버는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사회에서 야기되는 부정의 문제는 정부의 무능력이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유래하였고, 과거 군주제와 같은 것이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소위 자본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착되거나, 제국주의적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회주의와 같은 것이 대안이었다고 설명한다.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40), 36.

17 Ibid., 14.

18 Ibid., 16.

에서 드러난 부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기술 문명은 경제적 권력과 결합하여 부정의의 문제는 더 심화하였다고 니버는 본다.¹⁹ 근대 국가가 염원하는 것은 과거 원시시대 공동체의 목표와 달랐다고 니버는 지적하는데, 원시 공동체는 집합적인 의지를 다지고 국가 간의 조화와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근대 국가는 “평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들의 평화를 세계에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파악한다.²⁰ 결국, 자신들을 위한 평화의 요구는 권력의 요구와 다름이 아니다. 니버는 20세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형성 배경에는 권력의 독점인 제국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파악한다. 니버는 서구 권력의 이면에 “스토이의 세계주의(Stoic universalism)와 로마의 제국주의(Roman imperialism)”를 지목하고 있으며, 프랑스혁명과 연관된 나폴레옹의 제국주의, 그리고 백인 제국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²¹

니버는 모더니즘의 서구 발전의 이면에는 지구 내 “채 개발되지 않고 착취되지 않은 몫”에 대한 국가 간 분쟁으로 보면서 제국주의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였다.²²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사회정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처럼 개량적으로 접근한다.²³ 사회학자들은 근대의 문제들을 계급 간의 갈등으로 본다.²⁴ 그러나 니버는 사회과학의 분석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를 분석하는데, 인간은 욕망을 숨기고 소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권력을 이용하며, 그러한 이기심을 집단을 이용하여 숨기려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²⁵

니버의 후기사상에서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권력의 문제는 권력이 소수의 인간에게 주어질 때 권력을 가진 인간들끼리 쟁투하게 되는 문

19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51-52.

2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33.

21 Ibid.

2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6), 18.

23 Ibid., xix.

24 Ibid., xvi.

25 Ibid., 8.

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의 권력이 다른 인간의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하여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과학을 통한 완전개념과 사회과학을 통한 인간의 불완전 개념이 충돌하게 되고, 인간의 합리성을 통한 진보의 개념과 도덕적 불안전의 개념에 모순이 당연히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니버는 지적한다.²⁶

니버 시대 이념의 대결로 여겨졌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둘 다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니버는 지적하면서, 기껏해야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성취할 기회를 최대한 허용하면 이상적인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²⁷ 니버는 나름대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권력을 사용할 때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로 경제적, 정치적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들의 힘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과 둘째로 이러한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내적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²⁸

그러나 니버는 정치나 경제의 독점에 대한 적절한 분산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가능한 것은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어느 국가든지 그러한 정치적 도덕성을 갖춘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²⁹ 다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하여서는 미국이나 국제연합의 국제 사회의 분열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니버는 여기서 그 의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구”(institution)로서가 아닌 하나의 “구성체”(organ)로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공적 의견의 엄정한 조사 아래 자신들의 정책을 가져와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³⁰

26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69-70.

27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1952), 62.

28 Ibid., 79.

29 Ibid.

지금까지 필자는 모더니즘이 추구한 권력투쟁의 정치적 실체인 제국주의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니버가 나름대로 모색한 권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여 보았다. 모더니즘의 두 국제정치적 주체의 역할을 하였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니버는 도덕성을 갖춘 제도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는 유기적인 구성체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론을 제기하는데, 이는 근대주의가 회복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 현대의 관료제에서의 비인간화는 어쩌면 니버에게 이미 예견된 실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구성체”(organ) 안에서 모든 기관은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배타적이지 않고 차별이 없는 유기적 공동체에 대한 이상은 니버에게 여전히 희망으로 남아 있는 정신적 유산이었다. 이제 다음에서 니버가 파악한 모더니즘의 정신문명에 대하여 살펴보자.

IV. 모더니즘과 정신문명의 몰락

지금까지 필자는 앞장에서 모더니즘의 특성으로 권력의 속성과 제국주의적 권력투쟁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비인간화의 문제를 겪게 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니버는 모더니즘과 같은 세계화의 문제는 “인간을 기계적으로는 통합하면서 영적으로는 고립시키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한다.³¹ 과거에 사람들은 “태양, 달, 산, 또는 생성 과정”과 같은 자연의 능력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였지만, 근대 문명은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을 담보하고, 과거 “무질서와 무의미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한다.³² 그러나 니버는 “세계-의식의 세

30 Ibid.

31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929), 13.

3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4.

대”와 같은 모더니즘은 역설적으로 잔인성 비인간화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³³ 근대 문명의 문제는 “이성과 덕을 근거 없이 동일시”하여 “막대한 악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³⁴

니버는 인간의 부정의를 초래하는 사회 분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역은 경제라고 지적한다.³⁵ “인간적인 이상이란 단지 인간적 이익의 합리화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란 다양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일련의 계급 갈등이다”라고 본 마르크스의 관점은 세속적 자연주의라고 비판한다.³⁶ 니버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을 예로 들면서, 그가 주장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 방임주의적 입장을 가지면 정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한다.³⁷ 니버는 아울러 근대사회의 인종차별의 문제는 기술개발로 인한 계층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³⁸ 인종의 편견은 인종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며, 이 또한 “인종적인 삶의 의지”(ethnic will to live)에 관한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의 문제임을 지적한다.³⁹

니버에게 모더니즘은 정신문명의 쇠퇴를 의미한다. 니버는 모더니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보편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이성주의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은 과학적 세계관만을 고집하고, 낭만주의자들은 보편주의를 버리고 환상을 따른다고 니버는 비판한다.⁴⁰ 모더니즘은 종교의 역할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중세의 봉

33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929), 13.

34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36.

35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40), 144.

36 Ibid., 189, 193.

37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09.

38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1944), 96.

39 Ibid., 96.

40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1937), 236-240.

건제도를 끊고 부르주아 계급을 만들어낸 모더니즘은 자신들이 자유를 신장하려는 노력과 함께 역설적으로 그 자유를 규제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중세의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게 되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니버는 파악한다.⁴¹ 니버는 종교도 관용을 통하여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프랑스혁명에 그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 또한 기독교의 문화와 연관이 되어있어서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였다고 평가한다.⁴² 그러나 종교적 관용이나 민주주의 체제의 관용은 부르주아 계급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질되고, 종교적 겸손도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선한 의지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⁴³

니버는 모더니즘의 과정에 인간과 공동체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자기-사랑”(self-love)의 경향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통한 노력이나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제거하거나 이성의 합리화를 통한 교육의 노력이 따르면, 인간이나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질문하여야 할 문제는 왜 선한 인간이 정치적 독재나 경제적 욕망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⁴ 니버는 모더니즘의 문제에서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문제는 사회의 악을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⁴⁵ 니버에게 모더니즘의 문제는 인류가 과연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⁴⁶

41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1944), 17.

42 Ibid., 90.

43 Ibid., 91.

44 Ibid., 19.

4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1941), 111.

지금까지 필자는 모더니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정신문명의 위기에 대하여 니버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모더니즘의 기치와는 무관하게 모더니즘은 삶의 의지를 부추기지만,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야만성임을 니버는 지적한다. 그런데도 니버는 공동체 성원 간의 영적인 교류를 통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따라서 모더니즘은 아직도 이상(ideal)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V. 모더니즘과 공동체의 이상(ideal)

니버는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드러나는 이익에 의한 분열에 대해 그 대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평한 전문가 집단이 이익의 충돌에 대한 중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해답을 기독교의 이념에서 찾고 있다.⁴⁷ 니버는 미국의 경우 모더니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인간의 ‘원죄’이며, 이것이 아닌 그 어떤 사회 경제 정치적 대안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기독교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고 암시한다.⁴⁸

니버는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드러나는 인간과 집단의 이성을 통한 역사의 발전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그릇된 것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종교적인 겸손과 같은 덕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⁴⁹ 현대 국가가 절망의 시기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46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4. 모더니즘 과정 중에 나름대로 과학 기술의 발전은 공동체 성원 간 소통을 증진시켜 “영적이고 문화적인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체적인 고유한 인격으로서의 “개인적인 독립”을 강화하여 준 것으로 니버는 진단한다.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1952), 73.

47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9-10.

48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40), 36-37.

49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5.

니버는 과연 겸손할 수 있는지가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러한 도덕적 특성을 겸비하기 위하여서는 종교적 겸손을 통하여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검토가 국제 사회에서 가능하여지기 위해서는 권력은 정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니버는 강조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비록 권력을 사용하지만, 그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겸손’이 따를 때 가능하다고 니버는 주장한다.⁵¹ 니버는 교회가 비록 겸손과 회개를 통하여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권력의 문제에 대하여 예언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근대국가들 안에서의 국가의 교만에 대한 자각은 교회의 성원들보다 더 그 깊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⁵²

진정한 공동체는 그것이 인간과 국가 사이에서든지 아니든지, 단지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확립되지 않는다. 설령 진정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한 깨달음이야말로 강자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기실현의 도구로서 약한 자들의 삶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은 타자, 즉 다른 형태의 삶, 또는 다른 유일한 공동체는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한계로서 이 한계를 넘어 우리의 야망은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은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보완된다.⁵³

니버는 근대의 문제들이 비록 많은 난제를 안고 있지만, 그런데도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권력과 권위의 사용을 통하여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다.⁵⁴ 그러나 모더니즘이 실패한 연유에 대하여

50 Ibid., 71-72.

51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1952), 80.

52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30.

53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1952), 80.

54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니버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영적 혼돈”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개입된 정치적인 위기”가 총체적으로 연관이 된 것이라고 니버는 해석한다.⁵⁵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가 제시한 공동체의 이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정의를 위한 권력에 대한 도덕성의 검토를 니버는 과감하게 제시한다. 교회 또한 올바른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비록 예언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못지않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본 니버의 통찰력은 결코 이성의 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경고로 들린다. 무엇보다도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원죄의 개념으로부터 찾으려 한 니버는 신정통주의의 신학적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모더니즘의 혼돈을 ‘영적 혼돈’의 문제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 한 그의 관점은 신학적 존재론의 중심을 관통한다고 본다. 이제 다음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니버의 모더니즘 관점을 통하여 기독교 정치윤리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VI. 모더니즘과 기독교 정치윤리

니버에게 모더니즘의 과정 중에 드러난 윤리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인간과 집단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개인의 윤리적 책무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더니즘의 문제에 직면한 인간이 실패한 원인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권력과 덕을 과소평가한 합리주의자들이나 너무 이상적으로 본 낭만주의, 둘째는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중시한 경향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덕을

1945), 4.

55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12.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과대평가한 문제 등을 니버는 짚었다.⁵⁶ 따라서 니버가 파악한 근대의 인간은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으로 점철된다. 니버는 당시에 그가 경험한 ‘원자폭탄’의 참상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이며, 성경의 예언처럼 인간이 자신들을 높이고자 할 때 처하게 되는 사필귀정으로 보고 있다.⁵⁷ 이처럼 모더니즘의 문제는 과학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과 “역사적인 운명의 지배”를 동일시하여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기기만에 빠진 것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⁵⁸ “근대 문명의 탐욕은 부분적으로는 보편적인 인간성의 표출이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악덕”이라고 니버는 정의한다.⁵⁹

“모더니즘의 기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의 전형적인 기풍이 있는 단어로 간략할 수 있다. ‘당신은 무한한 목표들을 추구하라. 나는 그것들을 제한하겠다. 당신은 사다리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땅에서 그렇게 높은 것에 올라가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바닥으로 떨어진다.’”⁶⁰ 니버의 인간론은 이렇게 철저하게 유한성을 강조하는데, 인간은 자신에게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적절한 역할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⁶¹ 따라서 니버는 “인간의 가치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따라 좌우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에 의하여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정도로 현명한 사람들에 의한 최고의 가치에 대한 부단한 추구에 문명은 의지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⁶²

둘째, 개인의 윤리적 책무에 대한 강조로서 근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니버는 시도한다. 사회가 그 결속력을 잃게 되면 도덕적인 혼란에 빠지게

56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1941), 132-133.

57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1946), 66-67.

58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1952), 84-85.

59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929), 111.

6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26.

61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1941), 22.

62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929), 152.

되는데, 그 결과는 마치 “악 안에 선을, 그리고 선 안에 악”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⁶³ 니버는 당시 대중이 “비극의 드라마”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지적한다.⁶⁴ 이와 같은 모더니즘의 여파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정체성과 충돌하게 되었으며, 초월적인 기독교의 도덕성은 “민주주의, 상호협력, 국제연맹, 국제 무역 상호주의 그리고 다른 유사한 개념들”에 의하여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⁶⁵ 계몽주의의 선상에서 근대민주주의도 인간의 합리성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여 “보편적인 정의와 조화”가 가능하다고 과신하였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⁶⁶

무엇보다도 상업문명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기독교의 불가능한 윤리로 여겨졌던 ‘사랑’의 윤리도 “역사 과정에서의 내재적이고 즉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윤리적인 요소처럼 비치게 되었다고 니버는 비판하였다.⁶⁷ 니버는 이러한 모더니즘의 여파에 자유주의 신학이 합세하여 종교의 초월적인 요소들을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였던 흐름에 대해 비판하는데, 기독교 정통주의의 문제는 교회적인 관점으로 모더니즘의 문제에 접근하여 기독교의 사랑과 세속적 교육 간 상호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⁶⁸ 자유주의는 사회에 급진적인 관점을 취하여 마르크스주의(Marxism)를 대안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⁶⁹ 문제는 부르주아의 정신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으로 여긴 정통주의의 잘못처럼, 기독교 자유주의는 노동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궁극적인 진리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⁷⁰ 이런 맥락에서 공적 영역

63 Ibid., 36.

64 Ibid., 110. 니버는 사제의 미사를 돕는 복사(服事)가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것처럼 모더니즘에 처한 현대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비유로 표현한다.

65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5.

66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40), 54.

6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5-6.

68 Ibid., 7.

69 Ibid., 8.

70 Ibid.

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책무는 철저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니버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는 근대주의의 도덕성에 대하여 반성하고, 신학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니버는 근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개혁주의 전통의 복구에 있어서 문제는 만인사제설이나 칭의론이 자칫하면 개인주의로 흘러서 바리새파적이 되어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권력에로의 의지”(will-to-power)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을 니버는 지적하고 있다.⁷¹ 따라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심오한 성찰 없이 모더니즘에 들어선 현대는 “자아와 공동체 그리고 국가와 세계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책이 없다고 니버는 강조한다.⁷² 니버에게 모더니즘의 과정에서 신앙의 요소는 현저하게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근대의 문제를 기독교 변증법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니버의 변증법은 헤겔식의 변증법과 다르다. 니버는 헤겔식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더 완전한 이상으로 나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정으로 시작하는 처음부터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러한 유한성으로 시작하는 역사 발전이 궁극적으로 완성을 지향한다는 논리는 모순되기 때문이다.⁷³ 니버는 아모스의 예언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르크시즘과 같은 사회적 질서의 회복을 통하여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⁷⁴ 니버는 개인의 책무에 대하여 기독교의 신앙을 통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다. 니버는 “인생은 신앙과 이성 사이의 전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은 나중 성인기에 닥칠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⁷⁵ 문제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

71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1941), 215.

72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1944), 18-19.

73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8.

74 Ibid.

대의 이성이 문명을 파괴한다는 점에 니버는 주목하고 있다.⁷⁶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정치윤리관을 통하여 그가 극복하려고 노력한 모더니즘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치의 속성은 권력의 사닥다리의 끝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니버는 그 높이를 통하여 정치윤리를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 정치의 도덕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니버의 신학은 기독교 정치 신학의 방향에 등대의 역할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다음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VII. 결론: 기독교 정치 신학의 방향

니버의 근대론에 대한 위와 같은 통찰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기독교 정치신학과 공동체에 유효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 주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의 정치 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니버가 강조하는 기독교의 예언적인 특성은 일시적인 인간 실재와 문명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근대의 인식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의 물음이 가능하게 하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 이성과 근대의 프로젝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이상은 이 땅의 방법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종교적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니버의 정치 신학은 모더니즘의 과정에 인간의 유한성이 교만에 있음을 다시 중시하게 하며, 도덕적 책무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환기해준다. 니버는 인간과 집단 본성에 흐르는 죄의 문제를 역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대 세속 문명의 특징이며 그 한계라고 지적한다.⁷⁷ 기독교

75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929), 188.

76 Ibid.

교 평화주의나 완전주의는 ‘원죄’를 너무 강조하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⁷⁸ 그러나 니버의 역사관은 비판적이지 않다. 비록 역사가 타락과 죄로 얼룩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를 통하여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니버의 관점이다.⁷⁹ 니버는 정치가 역사 속에서 창조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폭정이 되었는지는 과두 정치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데, “생명을 통하여 죽음을 수여하였는지”, 아니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수여하였는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일축한다.⁸⁰ 결국, 생명의 정치가 되기 위하여서는 인간에게 수여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죄와 교만의 문제에 늘 깨어 인간의 한계를 각성하는 도덕적 의무와 연관이 되는 것이다.

셋째, 니버의 정치 신학은 예언적인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작용하는 이기주의가 힘의 균형에 의하여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 한계를 지속해서 고발하는 사명이 있음을 각성하게 한다.⁸¹ 종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욕주의 형태의 운동이 나타났지만, 근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그러한 종교적 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니버는 의심한다.⁸² 근대사회에서 종교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될 때, 인간의 영혼은 개인주의적 종교로 변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형태의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⁸³

77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40), 3.

78 Ibid., 5.

79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1941), 4.

80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949), 223. 니버는 이러한 징조를 목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나 성직자가 인간의 영혼이 아닌 외향적인 성공을 가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니버는 목회자로서 인간 본성과 집단의 이기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었는데, 저녁 설교가 오전 설교보다 더 비판적이라는 한 평신도의 지적에 대하여 “저는 오전에는 영적 설교를 하고 저녁에는 교화합니다”라고 응대하였다.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929), 39.

81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 43.

8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6), 54.

니버는 신정통주의 위치에 서 있지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는 관점을 가진다. 이럴 때 신학은 “인간이 이기적일 수 있지만, 이기심을 행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욕심이 많지만, 탐욕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⁸⁴는 니버의 책임적 자아의 모습에 마음이 간다. “권력과 마음과 이성의 폭”을 신장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누구나 같다고 보았던 니버는 그 궁극적인 답으로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⁸⁵

니버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진보와 발전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절망과 도덕적 파국으로 여행할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성의 시대란 이성적 작업에 의한 결과를 놓고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와 경제적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작동하는 이성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니버의 모더니즘 분석이 제기한 권력의 문제와 비인간화,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공적 역할의 갱신을 위하여 다시 주목하여야 할 이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Keywords

라인홀드 니버, 근대주의, 기독교 현실주의, 권력, 공동체 윤리
Reinhold Niebuhr, modernism, Christian realism, power, community ethics

접수일: 2020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5일

83 Ibid., 70-71.

84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1937), 278.

8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1941), 111.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 2020년 12월 18일 최종 접속.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0American%20History.pdf>, 2020년 12월 18일 최종 접속.

한글 초록

‘모더니즘(modernism, 근대주의)은 과학적 합리성을 통하여 왕조와 농노의 봉건적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서구중심의 모더니즘은 사실 약소국가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 식민지의 경험과 다름이 아니었다. 1,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아물면서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은 국가의 개념과 과학의 목표, 성과 인종 그리고 생태계에 관한 관심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과제를 앞둔 현 세계에서 라인홀드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을 재구성하는 이유는 그가 기독교 현실주의 이론가로서 꼼꼼하게 미국 사회와 국제 사회, 그리고 인류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근대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니버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볼 내용은 니버가 파악한 모더니즘의 문제, 국가의 역할, 모더니즘 과정의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책무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니버의 주요 저서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결론으로 니버의 통찰력을 통하여 기독교 신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감당하여야 할 정치윤리의 공공신학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라인홀드 니버에 대한 연구가 정치윤리적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같은 소주제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다. 바라기는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과제에 대한 예비 답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Reinhold Niebuhr's Theory of Modernism

Kyoung-dong Yoo, PhD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s purpose is to re-examine the modernization theories of Reinhold Niebuhr, in the modern world faced with the tasks of post-modernization. Reinhold Niebuhr had meticulously reflected upon the modern issues faced by the American society,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human civilization and had suggested alternatives as a Christian realism theorist. The topics which will be looked at through the theories of Niebuhr are the compositions of the modernization understood by Niebuhr, the role of the state, human identitie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The author will organize the topics mentioned above through the major works of Niebuhr and introduce a few proposals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public theology of the political theology which the Christian theology must cope with in the post-modern era.

So far, the researches on Reinhold Niebuhr were conducted sporadically in Korea, on sub-themes such as the political realism and Korean Unification. Hopefully, it is expected that Niebuhr's modernization theory will aid the preliminary discourse regarding along with the tasks of Christian political ethics.